

당뇨병 관리에 대한 의료사회복지사의 역할

최가영

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 사회사업팀

The Role of Medical Social Worker Engaging in Diabetes Management

Ga-Young Choi

Department of Social Work, CHA Bundang Medical Center, CHA University, Seongnam, Korea

Abstract

Diabetes is a chronic disease that requires patient self-management. Successful self-care by diabetics includes accepting their diabetes status and learning proper diabetes management, as well as creating and maintaining a lifestyle that enables diabetes management.

Recently, in order to improve diabetics' self-care capability, health education has been shared by trained specialists (doctors, nurses, nutritionists, and medical social workers, etc.) through team access.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medical social worker acts as a member of the treatment team and plays a role in helping patients' stabilize treatment and return to society smoothly by training them in psychological, economic, and social issues that make living with diabetes treatment difficul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ole of medical social workers engaged in the treatment of diabetics based on their clinical work.

Keywords: Diabetes, Health education for diabetes, The role of medical social workers self-management of diabetics

Corresponding author: Ga-Young Choi

Department of Social Work, CHA Bundang Medical Center, CHA University, 59 Yatap-ro, Bundang-gu, Seongnam 13496, Korea, E-mail: ciel95@chamc.co.kr

Received: Oct. 22, 2019; Accepted: Oct. 30, 2019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 © 2019 Korean Diabetes Association

서론

대한당뇨병학회 ‘Diabetes Fact Sheet in Korea 2018’에 따르면 당뇨병을 가진 사람은 30세 이상 성인 중 한 명 (14.4%)으로 501만 명 정도되고, 65세 이상 성인에서는 10명 중 3명으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당뇨병 유병률이 증가함을 보고한 바 있다.

당뇨병은 조절되지 않을 경우 다양한 합병증과 삶의 질 저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속적인 자가관리가 중요하다. 때문에 당뇨병 환자가 질병을 수용하고 효율적인 자가관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당뇨병 교육의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다. 이미 대다수의 병원에서 당뇨병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당뇨병 교육은 다양한 전문가들에 의해 각 영역별로 진행된다. 전반적으로 당뇨병 교육은 의사는 당뇨병에 대한 의학적 설명, 간호사는 당뇨병 관리를 위한 간호관리교육, 영양사는 영양관리에 대한 설명, 치료사, 운동처방사는 운동관리에 대한 설명, 의료사회복지사는 당뇨병과 관련이 있는 심리적 문제에 대한 환자와 가족의 대처요령에 대한 설명 및 필요한 자원을 얻는 방법에 대해 안내하는 것으로 구성되며 각 의료기관에 따라 차이는 있다.

당뇨병 교육은 대상자의 당뇨병관련 지식과 자가관리 행동의 향상, 혈당조절을 포함한 임상적 생리지표의 개선, 만성 합병증 발생률의 감소, 환자 만족도 증가 등 다양한 영역에서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1].

그러나, 당뇨병 교육의 장기적 효과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교육 후에 혈당조절 정도는 많이 향상되었지만 자가관리 행동은 1년 후에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

1~2회 당뇨병 교육만으로 환자의 실천도, 자아효능감을 증진하는 데는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당뇨병 교육에서 자가관리에 대한 동기유발과 자가관리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아효능감을 얻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2].

의료사회복지사의 교육 목적은 환자와 가족들에게 질병에 대한 이해를 돕고, 환자와 생활에서 비롯되는 제반 문제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심리적 지지환경을 조성함으로

써, 가족구성원들이 치료와 재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돕는 데 있다[3].

질병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방법을 바탕으로 질병을 가진 개인과 환경과의 상호작용 관계에 초점을 두고, 환자 및 가족의 사회기능 향상을 위해 개입하는 의료사회복지사의 역할은 당뇨병 환자가 자가관리의 주체가 되어 당뇨병 자체를 스트레스, 위기라고 인식하지 않고 당뇨병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양식을 변화시키고 지속할 수 있도록 함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의료사회복지사의 직무 중 사회사업 임상적 직무인 심리사회적, 정신적 문제해결, 경제적 문제해결, 지역사회자원연계, 사회복지 및 재활문제해결, 팀 접근 5가지를 토대로 당뇨병 환자 개입에 대한 의료사회복지사의 역할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론

1. 심리·정서적 측면

심리·사회·정신적 문제해결에 대한 사회사업 임상 직무의 내용을 살펴보면, 환자의 개인력, 가족력, 사회력조사를 통해 심리사회적, 정서적 문제에 대한 사정 후 문제해결을 위한 상담과 치료 및 치료팀과 협의한다. 만성질환 환자들은 진단 후에 좌절, 불안, 우울, 부정 등의 정서적 어려움을 겪게 된다. 만성질환인 당뇨병을 진단 받은 환자는 첫 진단의 심리적 충격 이후에 약물요법, 식이요법, 운동요법, 스트레스관리 등과 같은 수많은 자가관리 과업들에 의해 압도된다[4]. 의료사회복지사는 먼저, 생심리사회적(Bio-Psychosocial) 모델을 기반으로 환자와 가족을 이해하고 그 환자와 가족의 특성을 개별화한다. 당뇨병 환자가 진단을 받은 후 당뇨병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정서적 반응은 어떠한지, 당뇨병에 대해 어느 정도 수용하고 있는지 등에 관하여 환자의 심리적 상태를 파악한다[5]. 또한 환자뿐 아닌 환자의 발병에 대한 가족의 정서적 반응, 가족 간 의사소통, 정서적 지지체계도 살펴보아야 한다.

당뇨병 환자와 가족의 감정을 이해하며, 당뇨병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거나 사회적 기능을 향상, 행동변화를 위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상담가, 교육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당뇨병 환자가 자가관리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개입한다.

2. 경제적 측면

질병은 그 자체뿐 아니라 치료하는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변화하는 환자와 가족의 역할과 기능의 변화가 또 다른 여러 문제를 야기시킨다. 의료사회복지사는 환자의 경제력 평가, 진료비 지원, 무의탁 환자, 행려 환자 처리 등의 직무 내용을 토대로 경제적 측면에 대해 개입한다.

당뇨병은 실제로 조절되지 않는 경우 심근경색, 뇌졸중, 신부전, 하지절단, 시력상실 등의 합병증 발생 위험뿐 아닌 조기사망의 위험을 높여 국민건강보험 총 진료비의 20%가 당뇨병 환자의 치료에 사용되고 있고 당뇨병 환자 1인당 평균 진료비가 비 당뇨인의 약 3배에 이른다(6,7). 의료사회복지사는 당뇨병 환자가 치료유지에 있어 경제적 문제가 장애요인이 되는지 여부, 합병증으로 인한 치료가 환자 가구에 부담을 미치지 않는지 등 환자 및 환자 가구의 경제적 상황에 대해 평가한 후 필요 시, 경제적 문제가 자가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공공기관·민간기관 의료비지원, 필요 시 생계비 지원 제도 등에 대해 연결자 역할을 한다.

3. 지역사회자원연계 측면

의료사회복지사는 지역사회자원을 조직하고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지역사회자원에 대한 정보취합, 의뢰, 연계망 구축을 한다. 당뇨병 환자에 개입할 시, 당뇨병 환자가 속한 지역사회 내 자원, 서비스를 확인하며 자원을 활용하여 당뇨병 환자의 자가관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당뇨병 환자 중 취약계층 또는 노인들의 경우 스스로 자원을 찾아 서비스를 제공 받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보건소, 건강서비스 단체, 사회복지기관 등 지역사회의 자원을 확보

하여 당뇨병 환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연계하며 서비스 내용 등을 조정한다.

4. 사회복귀 및 재활측면

퇴원계획, 재활계획, 회복상태 및 사회 적응도 평가, 직업 훈련 및 취업지도에 관련하여 상담이 이루어진다. 당뇨병 환자들은 당뇨병 교육을 통하여 자가관리 기술을 습득, 동기부여를 받는다.

하지만 당뇨병 환자와 관계 맺고 있는 사회적 관계망 안에 있는 사람들의 당뇨병에 대한 인식, 이해력은 당뇨병 교육을 받은 환자, 가족에 비하여 낮을 수 있다. 환경과 관계 자체의 변화는 없지만 ‘당뇨병’을 진단 받음으로 당뇨병 환자가 환경과 관계 안에서 위축, 소외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의료사회복지사는 당뇨병 환자의 퇴원계획 상담, 사회복귀 상담에 있어 다양한 정보 수집을 토대로 환자와 구체적인 상담을 시행한다.

5. 팀 접근

회진 참여, 타부서와의 사례회의, 고위험 환자의 조기발견, 사례분석 평가를 수행한다.

당뇨병은 만성적이고 복합적 질환으로 환자에 대한 각 분야별 전문가가 함께 개입하며 환자의 자가관리 기술을 습득하고 자가관리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교육한다. 당뇨병에 개입하는 의료사회복지사는 교육팀의 일원으로 참여하며 교육자 역할을 한다.

결론

사회사업 임상적 직무를 토대로 당뇨병에 개입하는 의료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았다. 의료사회복지사의 개입은 당뇨병 환자가 병원 안에서 다양한 전문가로부터 교육을 통해 습득한 자가관리 기술이 삶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함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이미 사회사업 임상적 직무를 토대로 병원 현장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의료사회복지사들이 당뇨병 환자에 개입함에 있어 당뇨병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고 개입한다면 더욱 질 높고 당뇨병 환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의료사회사업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1. Kim HS. Role of diabetes educators and effectiveness of diabetes education. *J Korean Diabetes* 2013;14:194-8.
2. Kim JH, Chang SA. Effect of diabetes education program on glycemic control and self management for patients with type 2 diabetes mellitus. *Korean Diabetes J* 2009;33:518-25.
3. Lee GJ. Social work in health care. Seoul: HW Book; 2002.
4. Lim SC. Improving diabetes self-mangement and mental health through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J Korean Diabetes* 2018;19:186-91.
5. The 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Social Workers. Basic guideline of diabetes education for beginner medical social workers. Seoul: The 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Social Workers; 2017.
6. International Diabetes Federation. IDF diabetes atlas. 8th ed. Brussels: International Diabetes Federation; 2017.
7. Kim EJ, Hyun JS. Effects of an diabetic-education program on knowledge and self-care in patients with type 2 diabetes in hospitalization. *Asia-Pac J Multimed Serv Converg Art Humanit Sociol* 2019;9:479-87.